

<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

시 37:23,24 / 새찬송가 10 (통일 34) 전능왕 오셔서

1. 우리가 최악의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축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시37:24)

최악 된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요16:33).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질고나 문제 등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붙드셔서 완전히 앞드러지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게 하십니다(시118:16-18). 바로 이런 복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되는 가장 ‘현실적인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고난도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고난을 겪을 때 아주 앞드러지거나 망하거나 죽지 않고 칠전팔기로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승패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2. 누가 이러한 복을 받을까요

이런 칠전팔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우리가 걷는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 발걸음이 아니라 ‘길’을 보십니다(시37:23,24). 그래서 발걸음이 아니라 ‘길’이 중요합니다.

‘길’이란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불신자도 그 발걸음이 아니라 ‘길’로 구분됩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인생의 길을 정해서 가야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자신이 직접 인생길을 설정하지 않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갑니다(시37:5,6).

의인과 악인도 발걸음이 아니라 ‘길’로 구분됩니다. 악인은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길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걸음이 비틀거리 넘어질 때 아주 앞드러

지고 망해버립니다(시37:35,36). 이런 악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그의 인생목표를 수정하고 그의 길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사55:7).

그러나 의인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 길을 정해놓은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발걸음이 비틀거리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3.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인생의 길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는 꼭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을 목표로 정한 것과 같습니다.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는 성도 개인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의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바로 축복의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련을 거친 후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구원하시며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아갈 길 즉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교훈삼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넘어지지 않은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고전10:7-12). 혹여 자신이 넘어졌다고 생각된다면 아주 앞드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적용&실천>

우리는 스스로 내 믿음은 견고하여 넘어지지 않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넘어졌다고 생각됩니까? 또는 넘어진 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께 깨달게 해달라고 말씀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또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포기하지 맙시다.